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6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 일시 : 2016년 5월 9일(월) 오전 11:30

광 복 회

추 모 사

“파당(派黨)을 초월하여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타당한 대의명분이다.”

이는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강조하신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시는 명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세운 분단극복과 통일정부 수립구상이 민족의 살길을 여는 길임을 알고 계신 드문 선각자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조국광복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봉대(奉戴)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역설해 오신 선생님의 탄신 126주년 추모일입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본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한평생을 항일 독립운동과 민족교육, 언론과 정치활동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올곧게 사셨습니다.

전남 담양의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선생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시문을 잘 짓는 성리학자적인 자질은 물론,

개화된 부친의 도움으로 영어 등 신학문을 깨우치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선각자이셨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하신 뒤 교편을 잡고 계실 즈음에 국내와 중국, 미주의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시며 1919년 3.1독립운동을 기획하신 분으로서 현상윤 선생 등과 함께 기미 독립선언서 상의 ‘미 서명 15인’에 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언론 활동을 통한 실력양성을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삼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수차례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선생님의 신념은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특히 언론활동의 중심 매체인 <동아일보>는 선생님의 모든 정신과 혼을 담는 그릇과도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살아생전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큼 위대한 삶도 없다고 호소하는 선생님이시어!

우리 후세들이 선생님께서 못다 이루신 통합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옵소서.

2016. 5. 9.

광복회장 박 유 철